

2

2월의 양돈관리

올해 계획 다 세우셨죠?

컨설팅 수의사로서 12월과 1월은 항상 바쁜 계절이다.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므로 밀렸던 일들을 모두 정리하여야 하고, 1월은 새해의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방문하는 농장들에게도 올 한해는 어떤 식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위생관리를 할 지 지표를 제시하게 된다. 사실 많은 농장들이 12월에는 송년회와 이런 저런 업무들로 바빠서 새해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개 1월에 새해 계획을 세우곤 한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점검을 찬찬히 점검해 보기 바란다. 필자가 올 해 농장들에 제시하는 3가지 중요 지표들을 적어본다.

1. 기본적인 생산 및 경영 계획

작년 한 해의 번식 지표, 폐사 지표, 출하 지표들을 점검하고 올해의 예상치를 뽑아 보아야 한다. 전산 관리를 하는 농장들은 비교적 쉽다. 단순히 일지 관리를 하는 농장들은 매달의 자료들을 한 장의 종이에 요약해서 점검해 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작 작년에 모든 두당 출하두수는 얼마였고, 내 농장의 조수익은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하고 올해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두당 출하두수가 18두 미만이라면 심각하게 올해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모든 생산 단가는 증가하고 돈가는 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료에 대한 분석도 필수적이다. 내가 굳이 사료 입고에 대해 적어 놓지 않았어도, 거래하는 모든 사료 공급처가 여러분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프린트해서 찬찬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평균 단가는 얼마에 썼는지, 갓난 돼지 사료의 비율, 젖먹이의 비율, 임신돈과 포유돈 사료의 비율 등 몇 가지는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갓난돼지의 사료 비율은 농장의 수익성과 생산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가장 단가가 높고 허실이 많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으로 갓난 돼지 사료의 비율이 높다면 시정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좋은 사료 많이 먹는다고 출하두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비싼 사료 많이 먹는다고 출하단가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외부 조연자와 함께 점검을



김 경 진 원장
돼지와 건강 수의그룹

“1월은 새해의 지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자. 작년 한해의 번식, 폐사, 출하지표를 점검하고 올해 생산 및 경영계획을 수립 실천하자. 또한 이를 위한 농장의 위생 및 생산비 절감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실천하자.”



▲ 새해를 맞아 일지 관리를 하는 농장들은 매달의 자료들을 한 장의 종이에 요약 점검하여 내 농장의 경영지표를 분석하자.

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생 대책

작년에 어떤 문제들로 죽었는지 유심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매일 같은 현상으로 폐사가 발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점검하여 보면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몇 년치를 분석하여 보면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그럼 올해에

도 같은 문제로 죽게 될 터인데, 올해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인데, 실제로 양돈 전문 수의사를 고용하면 비용대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순히 질병의 해결뿐 아니라 생산비 절감, 효율적인 약품 사용 지도, 각종 생산 지표들의 점검과 비용 절감 방안 등등.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자료들은 지불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요즘은 질병 문제가 없어도 좋은 위생 상태와 낮은 생산비 유지를 위해서 수의사와 계약하는 일도 흔하다. 올해는 본격적인 생산성 경쟁이 시작되는 해이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돼지가 많이 죽는 농장들은 많은 수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질병이 문제가 되어도 돈가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문을 닫는 농장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틀



〈사진 2〉 보온구역 설치 예

꼭 보온상자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농장에서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다. 보온구역 설정은 육성율이 좋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전기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생산비 절감 대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사진 3〉 비육사의 보온

비닐을 쳐서 보온등 사용과 열풍기 사용을 대폭 줄였다. 보온등 위에 비닐이 쳐져 있는 것을 잘 보라. 특히 재래식 원치 돈사에서 겨울철 열풍기와 보온등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어떻게 생산비를 줄일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야 한다.

농장도 점차 늘어난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하여 약품비를 모든 두당 15,000원 이하로 떨어트린 농장도 여러 군데이다.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돼지를 키우려고 하면 도태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필자가 처음 양돈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입질 사료는 무조건 7일령에 주는 줄 알았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처음에는 10일령에, 나중에는 15일령, 20일령 식으로 점차 급이 기간을 줄여 보았다. 입질을 줄여도 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출하일령도 줄어 들지 않았다. 물론 입질 일령을 늦추려면 여러가지 보완 사항이 있다. 무턱대고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고 준비를 하면 입질을 2,3일만 해도 충분한 경우를 보게 된다.

전기세, 유류비가 많이 든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돈사의 단열이 불충분하니 무조건 비싼 판넬을 대야 하는가? 화재만 예방될 수 있다면 합판을 대어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공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도 훌륭한 단열제가 될 수 있다. 비닐을 이용해서 공기를 가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꾸 생산비를 절감하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른 수건도 한 번 더 짜서 사용해야 할 시기가 왔다. **양돈**

리다. 빨리 농장의 위생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3. 생산비 절감 대책

사료값은 천정부지이다. 약품값도 점차 오른다. 철제 자재비도 천정부지로 오른다. 생산비는 기하급수적인 증가 현상을 보인다. 마른 수건도 짜서 사용해야 할 처지이다. 정확하게 생산비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관리하는 농장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이유전 3일간만 입질 사료를 급이하는 농장도 있다. 입질 사료를 1호가 아닌 2호로 급이하는 농장은 엄청나게 많다. 젓먹이 사료 급이 시점을 45일로 잡는